

PLAY

한국연극, 청년관객 중심에서 벗어나야 -제11회 골든마스크 연극제를 다녀와서

김윤철 | 연극평론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교수

한국 연극은 이제 과감히 사춘기를 벗어나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극도 정열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나이 든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깊이 있는 인생철학과 통찰을 단순한 연극문법으로 창조하는 작업들이 꾸준하게 실현된다면, 그뒤에 우리가 인쇄심 있게 기다린다면 고급문화에 대한 향수욕구가 큰 나이 든 관객들과 지식인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믿는다. 사춘기와 청년기만 있는 한국 연극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연극의 미래는 없다.

의미를 찾아서

3월 31일부터 4월 5일까지 러시아의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11회 골든마스크 연극제를 다녀왔다. 행사 가운데 일부인 러시아 케이스 시어터(Russian Case Theatre)주간에 초청되어 참관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과 구성을 보면 러시아 연극의 해외수출을 촉매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히 읽힌다. 작품마다 참가인원, 화물의 중량, 공연공간의 최소규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여행의 여섯 동안에 본 8편의 연극이 거의 모두 전형적인 러시아 연극이었다. 뉴욕타임즈의 모스크바 특파원이며 이번 축제의 큐레이터인 존 프리드만의 설명을 들으면 러시아 연극의 다양한 면면을 보여주기 위해 작품의 스펙트럼을 넓혀서 공식참가작들을 선정했다 하는데, 내게는 현대러시아 연극의 다양성보다는 스타니스슬라프스키의 성격창조를 근간으로 하는 러시아 연극의 전형성이 훨씬 두드러져 보였다. 전체적인 반응을 러시아 및 타국의 평론가들로부터 질문 받고 나는 두 단어로 일관되게 응답했다. "좋았지만 평범했다(Good, but ordinary)."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평론가적 직업의식의 발로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내가 이 연극제를 즐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개인적인 선호이긴 하지만 나는 항상 등장인물의 성격 창조가 진실하고 흥미롭게 잘 구축되어 있고 그것을 배우가 살아 있게 재창조하는 무대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평범하긴' 했지만 이번의 러시아연극들은 충분히 즐길만 했고 더러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포스트모던한 시대에 좀 촌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내가 연극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감동을 얻기 위해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골든마스크 러시아 케이스 연극제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해준 개인적 발견이 하나 있다. 나를 감동시키는 연극은 도대체 어떤 연극인가? 라는 질문에 분명한 하나의 대답을 찾은 것이다.



‘개인적’인 발견이니까 원리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고 한 평론가가 작품을 보고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좀더 정확하겠다. 이번 모스크바 여행의 가장 큰 의미를 나는 내가 그 동안 무의식적으로 작품을 평가하는데 적용해 왔던 잣대 가운데 하나를 분명하게 규정할 수 있었다는 데서 찾는다. 그러나 비록 이것이 개인적인 기준이고 잣대이긴 하지만 연극에 종사하는 다른 이들과 공유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이 발견이 축제에서 확인된 것인 만큼 우선 모스크바 골든마스크 연극제에 대해 소감을 몇 마디 적어본다.

골든마스크 러시아인 케이스 연극제

러시아 전역에서 12인의 추천위원들이 추천한 후보작 가운데 두 사람의 기자(평론가)가 20편의 공식참가작을 선정하여 1주일간 펼쳐지는 경연제 축제가 이 러시아인 케이스 연극제다. 기획의도와 작품선정에 관한 절대적인 권한을 두 평론가에게 일임하고 있는 것이 나한테는 무척 신선하게 느껴졌다. 스웨덴의 연극제도 작품선정을 전적으로 평론가에게 일임하고 있지만, 그리고 동구권의 연극제가 대부분 평론가들이 주도하는 선정과 심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연극제의 기획과 평가에 평론가의 참여를 되도록 줄이려고 하는 한국연극계의 반비평적 분위기와 늘 싸워야 하는 나로서는 이 보편적인 시스템이 솔직히 부럽기까지 했다.

지난 2~3년간 러시아인 케이스 연극제의 큐레이터로서 앞에서 말한 미국인 존 프리드만(그의 부인이 러시아에서 가장 평가받는 여배우다)과 마피샤 매거진이라는 연극저널에 비평을 기고하는 엘레나 코발스카야라는 여자 평론가가 참여해 왔다. 두 큐레이터는 올해 처음으로 오프-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연극원과 모스크바의 기티스 연극학교 등 두 학생 공연을 포함시켰다. 러시아 연극의 미래를 미리 보여주

는 프로그램인데 한국의 경우 경연을 회피하는 분위기 때문에 이런 기획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평가를 배제한 채 희망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자유참가 형식뿐인데 그것은 경연 형식의 축제 성격을 부정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골든마스크협회를 창설한 에두아드 보야코프는 기초연설에서 몇 가지 사실과 문제점을 밝히고 고백했는데, 그가 고민하는 내용이 우리네 사정과 무관하지 않아 흥미로웠다.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크지만 기타 스폰서의 지원을 합쳐 우리 돈으로 약 3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갈수록 정부 쪽에서의 지원이 축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며, 올해 초 푸틴 대통령의 연두교사에서 ‘문화’라는 명사는 물론 ‘문화적’이라는 형용사조차 11쪽에 달하는 긴 연설문 중에 단 한 차례의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솔직한 위기를 느낀다고 고백했다. 그는 연극예술가들에 대한 비판도가 하면서 견해의 균형을 유지했다. 전 문화부장관이었던 연극평론가 미하일 슈브드코이의 말을 빌어서 그는 시대의 변화에 이렇듯없이 연극예술가들은 “자본주의적 봉급과 봉건주의적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고 실천가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보야코프의 균형 잡힌 견해는 연극이 왜 언제 어디서나 위기인지를 설명한 명쾌한 통찰이었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이 러시아 연극제에 올해만 해도 31개국에서 약 100명에 이르는 연극관계자들, 주로 축제감독들과 연출가들 및 평론가들을 초청하여 러시아 연극의 최근 경향을 보여주면서 해외수출을 상담하고 판촉하는 것이었다. 국제연극제가 아닌 자국의 연극제에 이만한 인사들을 초청한다는 것이 연극에 관한 한 중주국적 멘탈리티가 없어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그 많은 연극인들이 해외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 또한 러시아 연극의 국제성을 확인해

준다고 단언할 수 있다. 작년에 리투아니아의 빌니우스에서 개최된 제1회 빌니우스 국제연극제가 『리투아니아 케이스 연극제』 주관을 설정하여 운영한 것의 전범이 됐던 것도 사실은 이 골든마스크 연극제가 아니었다 싶다. 이제 한국도 공연을 수입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을 생각해야 하는 시점이 됐고 뮤지컬 극단 에이컴이 벌써 발 빠르게 그런 방향에서 일을 꾸미고 있지만, 좀더 공적으로 서울연극제나 서울국제공연예술제에서 구체적으로 그 실현방안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고 믿기에 두 축제를 지원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발행하는 이 잡지의 지면에서 서둘러 소개하는 바이다.

좋은 공연

나는 이번에 특히 두 작품의 공연을 즐겼다. 하나는 우리에게 <검은 수사>를 가지고 방문하여 깊은 인상을 심어줬던 러시아 연극계의 마에스트로 카마 강카스가 안톤 체홉의 단편소설을 기초로 연출한 <로스셴드의 피리>라는 공연이었는데 강카스 작품치고는 꽤 평범하게 연출된 공연이었고, 다른 하나는 타바크 스튜디오 극단이 리투아니아의 젊은 연출가 민다우가스 카르바우스키스 연출로 러시아 연극의 관습에 따라 만들어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 공연한 <바나 아저씨>라는 아주 평범한 공연이었다.

왜 이 공연들이 나를 그토록 매료시켰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특히 우리에게 낯선 <바이올린>의 경우는 극단이 제공한 영문 시놉시스를 먼저 소개할 필요를 느낀다. 편역해 보면 다음과 같다.

주인공 야코프 이바노프는 평생 관 만드는 목수일을 해왔는데, 사람들이 그가 이득을 볼 만큼 충분히 빨리 죽어주지 않는다. 별도의 수입을 위해 그는 지역의 유대인 악대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다른 보통 지역주민들처럼 그 역시 유대인을 싫어한다. 특히 주근깨 투

성이의 로스셴드를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싫어한다. 야코프 인생의 모든 것이 실패한다. 그는 일요일과 공휴일 때문에 잃어버린 돈을 계산하고 그날그날의 생활비에 신음하고 급기야 52년을 해로했던 아내에게 차 대신 뜨거운 물을 마시게 한다.

아내가 병들자 그는 갑자기 자신과 우주의 관계, 우주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에 의문을 던진다. 그리고 이런 계시를 듣는다. '인생은 완벽한 실패, 낭비다. 사람들은 자잘한 실수와 모욕과 증오 속에서 길을 잃는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좀더 선행을 베풀었다더라면 인생은 더 이익을 봤을 텐데.' 그러나 지금 당장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죽는 것이다. 죽어 관에 누워 있으면 먹고 입힐 필요도 없지 않는가.

비록 그가 아내를 학대했고 남편으로서 소홀했다 하더라도 야코프는 혼자서 살아가는 게 힘들어 보인다. 아내가 죽고 단 이틀 만에 그도 죽음의 침상을 대면하는데, 그는 선택을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내에게 인색하게 군 것에 대해서, 옛날에 둘 사이에 있던 아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잊은 것에 대해서 후회한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민하게 굴고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것을 후회한다. 그는 슬픔을 누를 길이 없어서, 영원한 실패를 느끼면서 옆에 있는 바이올린을 드는데 이 때 그가 연주한 음악은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것이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로스셴드는 야코프가 두렵기는 하지만 가까이 다가와서 음악을 즐긴다. 둘은 함께 운다. 마침내 목사가 야코프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자 그는 대신 이렇게 말한다. "로스셴드에게 바이올린을 주십시오."

2004년 1월, 미국의 예일 레퍼토리 극장에서 세계 초연된 이 공연은 말을 못 알아듣는 내게 텍스트의 힘으로 감동을 준 것은 분명 아니다. 거친 줄거리만 미리 읽었지만 체홉의 소설이 감동적이고 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음은 분명했다. 그러나 실제로 감동시킨 것은 무

관심 주기 힘든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와 무대 만들기를
 흥미롭게 실현하면서 삶에 대한 연극적 발언과 담론에
 문학적 철학적 깊이를 보탬 수 있을 때 젊은 인물들 중심의 감각적 연극보다
 훨씬 진하고 깊고 아픈 성숙한 인생이 무대에서 반영되지 않겠는가?

대 만들기였다. 오로지 자연색의 여러 크기로 짜여진
 관들과 식탁 등 오브제들만 가지고 거의 최소주의를 느
 낄 만큼 단순하게 연출된 이 공연의 가장 큰 힘은 야코
 프 역의 발레리 바리노프의 단순 투박하고 목표에 동물
 적으로 집중하면서 역할과 배우의 거리를 완벽하게 제
 거한 힘있고 진실한 역 창조에 있었다. 나는 공연시간
 내내 그에게서 눈을 돌릴 수 없었다.

〈바나 아저씨〉의 줄거리까지 소개하면 독자들이 화
 널 테니까 생략한다. 스타니슬라프스키가 활동했던 모
 스크바 예술극장의 갈매기 심벌을 보는 순간부터 사실
 나는 감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
 다. 일찍부터 스타니슬라프스키에게 매료되어 석사학
 위 논문마저 그에 대해서 썼던 나로서는 이 늦은, 그러
 나 매우 역사적인 극장체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다. 연출은 에이문타스 네크로슈스의 제자로 리투
 아니아의 젊은 연출가인 카르바우스키스가 했는데 마
 치 책에서 읽던 스타니슬라프스키의 연출을 보는 듯 배
 우들의 연기와 미장센이 정말로 자연주의적이었다. 이
 공연에서 색다른 점이 있다면 러시아인에게 가장 사랑
 받는 등장인물 가운데 하나인 바나 아저씨를 흔히 하듯
 이 동정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장점이라고는 거의 없는
 인물로 간주하여 잔인하고 투박하게 취급한 것이었다.
 공훈배우가 바나 아저씨를 연기했는데 극장을 가득 메
 운 관객들 역시 이 색다른 해석에 처음부터 공감한 듯
 전혀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연출자의
 해석에 맞춰 냉정하게 반응할 뿐이었다. 그러나 퇴임교
 수 알렉산드르, 그의 딸 소녀, 젊은 새 아내 엘레나, 늙
 은 유모 마리나, 의사 아스트로프 등에 대해서는 한결
 같이 애정 어린 관심을 퍼부었다. 등장인물 하나하나가
 정말로 살아 있었다. 특히 소녀 역의 젊은 여배우는 그
 엄청난 크기의 가슴 무게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대 위
 서 쏠살같이 뛰고 걷고 일하면서 아스트로프에 대한 사

랑과 바나에 대한 동정, 그리고 무엇보다 삶에 대한 집
 작을 강하게 표출하였다(그녀는 여자연기상의 강력한
 후보다). 그리고 그녀 못지않은 늙은 등장인물들(배우
 들) 또한 나이에 걸맞은 삶에 대한 통찰과 순화된 집착
 과 꺼지지 않는 애욕을 보이면서 어느 한 사람 나의 관
 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거의 3시간 진행된 공연 내내
 나는 거의 모든 등장인물과 동일시되면서 잘된 성격창
 조를 체험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 두 ‘평범한’ 공연을
 내가 그렇게 좋아했다면 나는 동료들의 질문에 “Good,
 but ordinary”라고 대답하는 대신 “평범했지만 좋았어
 (Ordinary, but good)”라고 대답함으로써 가치의 순위
 를 정확히 전달했어야 했다.

좋은 공연의 기준 하나

이제 좋은 연극의 기준을 말할 준비를 마쳤다. 준비작
 업이 길었으니 결론을 서둘러 말하자면, 나이든 배우
 가 늙은 등장인물을 연기하면서 관객(나)의 관심을 집
 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좋은 연극이라는 것이다. 골
 든마스크의 러시아인 케이스 연극제에 한해서 말해도
 〈바이올린〉이 그랬고 〈바나 아저씨〉가 그랬다. 먼저
 체험하고 나중에 자기 분석해 본 결과 이 기준의 정당
 성은 너무나 명료했다. 노인 등장인물들이 지닌 인생
 체험의 깊이가 고뇌하는 젊은 등장인물들의 어색한 철
 학보다 훨씬 깊어서 관객(나)에게 삶에 대해 훨씬 본
 질적이고 중요한 사유를 촉발해 주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 이유는 열정적이지만 미숙하고 피상적인 젊은
 배우보다 잘 훈련된 노인 배우들은 그 무대에서의 현존
 자체가 이미 다른 차원의 연극적 무게를 표현해 준다는
 사실에 있다. 고뇌하는 햄릿보다 통회하는 리어가 더
 감동스럽고,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오스왈드보다 정신
 적으로 방황하는 만테르스 목사에 더 동질화된다고 말
 한다면, 내가 너무 이상한 관객/독자인가? 관객의 상



식적 관심이야 물론 젊은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지만 관심 주기 힘든 노인들을 중심으로 한 글쓰기와 무대 만들기를 흥미롭게 실현하면서 삶에 대한 연극적 발언과 담론에 문학적 철학적 깊이를 보낼 수 있을 때 젊은 인물들 중심의 감각적 연극보다 훨씬 진하고 깊고 아픈 성숙한 인생이 무대에서 반영되지 않겠는가?

물론 한국의 관객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더 선호한다. 적어도 연극무대에선 절대적으로 그렇다. 이것이 한국 연극이 영원한 사춘기, 또는 유년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원인이자 결과라고 감히 단언한다. 늙은 연극인이든 젊은 연극인이든 온통 젊은이들을 중심인물로 삼아 젊은 관객들의 기호에 영합하는 이야기와 무대 만들기만 일삼고 있지 않느냐 말이다. 관객이 없는, 특히 대학생 아닌 관객은 없는 한국 연극 현실의 원인을 다른 어디에서 찾겠는가. 관객들은 성장하는데, 연극이 그 성장을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같이 가주기는 해야 관객들이 늙어가면서 계속 극장을 찾아줄 텐데, 허구한 날 젊은애들 장난만 치고 있으니 그들이 관심을 지속해 줄 리 없다. 결국 그들을 극장 밖으로 몰아낸 주범은 연극인 자신이다. 어찌다 나이 든 등장인물들을 흥미롭게 작가가 그러도 등장인물의 자식이나 손자뻘에 해당되는 배우들이 건강한 신체를 억지로 구부려서 등장인물의 외면적 나이만을 서툴게 흉내내는 무대에 멀쩡한 어른들이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거짓되게 흉내만 내다 진짜로 늙어버린 배우들의 기계적인 늙은 연기는 관객들을 더욱 괴리시킨다. 그것이 지금 한국 연극이 처한 현실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는가? 무대 현존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노배우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몇 명이나 되는가?

제안 하나

사실 나는 이미 제안을 한 셈이다. 한국 연극은 이제 과

감히 사춘기를 벗어나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 대한 연극도 정열적으로 수행해야 하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이야기도 과감하게 시도해야 한다. 그러지 못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극작가나 연출가, 배우 모두 젊은 연극 흉내만 내다 자기 나이도 표현하지 못할 만큼 성장을 멈췄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지원이 너무 많아서 연극이 되보겠다는 이야기가 횡행하는 판에 우리 연극작가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관객이 안 올까봐? 관객은 어차피 잘 안 온다. 나이 든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을 만큼 성숙한 등장인물들의 삶을 통해 깊이 있는 인생철학과 통찰을 단순한 연극문법으로 창조하는 작업들이 꾸준히 실현된다면, 그 뒤에 우리가 인내심 있게 기다린다면 고급문화에 대한 향수욕구가 큰 나이 든 관객들과 지식인 관객들을 극장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고 믿는다. 사춘기와 청년기만 있는 한국 연극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한국 연극의 미래는 없다.

분명히 모스크바 시민들의 삶의 질은 열악했다. 뿌리 깊은 관료주의, 시민들을 함부로 대하는 권력기관들, 이웃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 그러나 그들은 다행히 스타니슬라프스키 같은 위대한 선배를 두었기 때문에 삶의 질과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예술적 질을 구가하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오랫동안 스스로 규정하지 못했던 '좋은 연극의 기준 하나'를 명확하게 정의 내릴 수 있었으니 이번 여행은 평론가인 나한테는 참 유익한 여행이었다. ☘